

'76승' 류현진, 메이저리거 넘는다

4승 추가하면 4위 구로다 79승·5위 다나카 78승 넘어

박찬호 124승으로 1위...3위 다르빗슈와 21승 차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13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경기 1회 초 투구하고 있다. 류현진은 5이닝 2피안타 2볼넷 2실점(비자책) 3삼진을 기록했고 팀은 11-4로 승리해 444일 만에 선발승을 기록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76승(46패)를 달성하면서 부상에서 벗어나 재도약을 알렸다. 아시아 메이저리거 최다승인 박찬호의 124승(98패)까지 넘보긴 어렵지만 일본인 메이저리거들의 기록을 맹렬히 추격할 전망이다.

류현진은 14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2피안타 2볼넷 3탈삼진 2실점(비자책)으로 호투했다.

이날 토론토는 류현진의 패투를 앞세워 11-4 승리를 거뒀고, 류현진은 복귀 3경기 만에 첫 승(1패)을 수확했다. 박리 개인 통산 76번째 승리.

아시아 투수 최다승 기록을 보유한 '코리아 특급' 박찬호의 기록까지 다가서기엔 다소 거리가 멀다. 박찬호는 메이저리그에서 17년을 뛰면서 476경기 124승 98패 1715탈삼진 평균 자책점 4.36을 기록했다.

류현진이 박찬호의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우려면 무려 49승이 필요하다. 부상으로 보낸 공백기간과 류현진의 나이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도전이다.

다만 일부 일본인 투수들의 다승 기록은 일단 쉽게 추월이 가능해 보인다. 류현진이 4승을 추가하면 메이저리그 아시아 투수 최다승 4위 구로다 히로키(79승 79패)와 5위 다나카 마사히로(78승 46패)를 제친다. 구로다는 2016년 현역에서 은퇴했고, 다나카는 일본프로야구(NPB) 라쿠텐 골든이글스에서 활약 중이다.

2위는 12시즌 동안 통산 123승(109패)을 따낸 노모 히데오다. 올 시즌 100승 고지를 밟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다르빗슈는 103승(82패)으로 3위에 올라있다.

올해 토론토와 계약이 끝나는 류현진이 앞으로 메이저리그에서 2년 이상 활약한다면 아시아 빅리거 4번째 통산 100승 도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컵스전에서 만 36세 4개월 20일의 나이로 승리한 류현진은 박찬호(만 35세 10개월 13일)의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고령 선발승 기록을 경신했다.

류현진은 박찬호(만 37세 3개월 2일)의 한국인 빅리거 최고령 승리 기록도 노려볼 만하다. 선발 승리 외에 구원승까지 포함한 기록이다.

다만 필수 조건은 잔류다. 내년에도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밟아야 기록 경신을 바라볼 수 있다.

뉴시스

최지만, 왼쪽 갈비뼈 부상

으로 부상자명단 등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뛰는 최지만(32)이 또 부상으로 멈춰섰다. 미국 샌디에이고 지역 샌디에이고 유니온-트리뷰는 15일(한국시간) 샌디에이고 구단이 왼쪽 갈비뼈 염좌 진단을 받은 최지만을 부상자명단(IL)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밤 열번 샌디에이고 감독은 "최지만이 통증을 참고 뛰려하려 했지만 상태가 더욱 안 좋아졌다"며 "스윙을 하면 회복이 더 늦어질 것 같아 부상자명단에 올렸다. 부상자명단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지만은 지난해 11월 트레이드를 통해 탭 파베이 레이스에서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했다.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둔 지난 2일에는 피츠버그에서 샌디에이고로 또 트레이드돼 김하성과 한술밤을 먹게 됐다.

성적은 신통치 않았다. 이적 후 7경기에서 안타를 하나도 치지 못했다. 11타수 무안타 5볼넷 3득점을 기록했다.

지난 12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 이후로는 경기에서 나오지 못했는데 부상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최지만이 부상자명단에 오른 것은 올 시즌 두 번째다.

피츠버그에서 뛰던 지난 4월 14일 발목 부상으로 부상자명단에 오른 최지만은 왼쪽 아킬레스건 염좌가 발견돼 석 달 가까이 회복과 재활에 매달렸고, 85일 만인 7월 8일 빅리그에 복귀했다.

팀을 옮긴 최지만은 반등을 노렸으나 또 부상 압축을 만났다.

올 시즌 30경기 출전에 그친 최지만은 타율 0.179 6홈런 11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679를 기록했다.



광양여고 축구부, 전국여자축구선수권 우승

포항여전고 2-0으로 꺾고 우승차지...2관왕 달성

광양여고 축구부가 다시 한번 전국을 제패하며, 시즌 2관왕을 차지했다.

전남축구협회(회장 신정식)는 지난 3일부터 13일 경남 창원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22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광양여고 축구부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남선수단은 이번대회에 광양여자고(고등부), 광영중(중등부), 광양중앙초(초등부) 선수단을 꾸려 출전하였다.

특히, 제104회 전국체전 여자고등부 도대표로 출전하는 광양여자고(고등부)의 활약이 눈부셨다.

예선에서 대구동부고에 5:0, 강원화천정산고를 5:1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 충남인터넷고에 4:0 승, 4강에서 조 2위로 강릉FC를 꺾고 올라온 강원화천정산고를 다시한번 5:1로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하였고, 결승에서 '강팀'이자 '라이벌'인 경북포항여전고를 만나 2:0으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광양여고 주장인 황다영(3학년)은 최우수선수상, GK상은 위혜빈(2학년), 득점상은 조혜영(2학년)이 수상했고, 권영인 감독과 김효선, 이슬기 코치는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한편, 동 대회에 참가한 광영중은 예선 3승 0패로 조 1위로 8강에 진출하였으나 경남진주여중에 0:3로 패하며 어렵게 대회를 마무리했고 광양중앙초 또한 예선 4승 1패로 조 2위 본선 6강에 진출하였으나 충북남산초와 1:1 무승부로 승부차기 끝에 3:4로 패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전남축구협회 신정식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에게 고맙다.면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선수들이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전남체육회 송진호 회장은 "우리 도에서 15년만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이라는 큰 대회를 앞두고 우수 성적 거양을 위해 담금질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EPL 최강 레전드 콤비 '손·케 듀오', 역사 속으로

총 47골 최다 합작...공식전 54골 뒀던 이적으로 최강 콤비도 작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역사상 최강의 콤비로 불렸던 '손·케 듀오'가 역사로 남게 됐다.

유스 출신으로 임대 생활을 제외하고 줄곧 토트넘에서만 뛰어난 '특급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이 독일 분데스리가 최강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

최소 1억 유로(약 1460억원) 이상의 이적료를 토트넘에 안겨 준 케인은 등번호 9번을 받고 2027년 6월까지 뮌헨과 계약했다.

각종 옵션 등을 포함하면 이적료는 2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토트넘을 넘어 EPL에서 '영혼의 단짝'으로 불렸던 손흥민과의 합작골도 더는 볼 수 없게 됐다.

케인은 토트넘에서 공식전 435경기에 출전해 280골을 터트린 정상급 골잡이다. 또 리그에서만 213골을 넣어 앨런 시어러(260골)에 이어 이 부문 역대 2위에 올라 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이 리그 8위로 부진했을 때도 케인은 혼자 30골을 책임졌다. 만약 케인이 계속 EPL에 남았다면, 시어러의 기록을 넘는 건 시간문제였다.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과도 2015~2016시즌부터 8시즌 동안 함께하며 역사를 썼다.

둘은 서로의 득점을 도우며 총 47골을 합작했다. 손흥민이 24골, 케인이 23골을 넣었다.

손흥민과 케인이 만나기 전 최다 합작골을 만들었던 첼시의 디디에 드로그바와 프랭크 램파드(36골)를 넘어선 지 오래다.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EPL 3연패를 이끈 앨런 홀란과 케인 더 브라위너도 아직 10골밖에 합작하지 못했다.

손·케 듀오의 첫 합작골은 2015년 11월 카라바호(아제르바이잔)와의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경기였다. 코너킥 찬스에서 손흥민이 헤더로 연결한 패스를 케인이 마무리했다.

EPL에서는 2016년 9월 스토크시티전에서 손흥민의 크로스를 케인이 왼발로 마무리한 게 처음이었다.

손흥민이 케인의 도움으로 처음 골을 넣은 건 2017년 1월 맨시티전으로. 케인의 감각적인 패스를 손흥민이 오른발로 차 넣었다. 둘의 3번째 합작골이었다.

손·케 듀오가 찰떡궁합을 자랑하기 시작한 건 2019~2020시즌부터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떠나고 델리 알리의 기량이 떨어지면서 둘이 발을 맞출 기회가 늘었다.

특히 2020~2021시즌에는 14골을 합작해 EPL 한 시즌 역대 최다 합작골 기록을 세웠다.

해당 시즌 손흥민은 사우샘프턴과 경기에서 무려 4골을 폭발했는데, 모두 케인의 도움이었다.

지난해 2월 맨시티전에선 손흥민의 도움을 케인이 득점으로 연결하며 드로그바-램파드와 동률을 이뤘고, 이후 리즈 유나이티드전에서 케인의 어시스트를 손흥민이 마무리하면서 새 역사를 작성했다.

계속될 것 같았던 손·케 듀오의 합작골은 이제 끝이 왔다. 2022~2023시즌 리즈와의 최종전에서 손흥민의 도움을 케인이 마무리한 게 마지막 합작골이었다.

시즌별로는 2016~2017시즌(6개), 2017~2018시즌(6개), 2018~2019시즌 4개, 2019~2020시즌 4개, 2020~2021시즌 14개, 2021~2022시즌 7개, 2022~2023시즌 6개다.

UEFA 챔피언스리그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리그컵 등을 합치면 공식전 합작골은 54개다.

영혼을 함께한 형제 케인의 이적에 손흥민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리더, 형제, 전설, 첫날부터 같이 뛰 기억이 내게는 기쁨이었어"라며 "함께 만든 엄청난 골들, 놀라운 경기들, 기억이 정말 많다"고 작별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해리, 네가 나와 우리 팀, 팬들에게 준 모든 게 감사해"라며 "새로운 인생의 장에 최고의 행운이 함께 했으면 해. 행운을 빌어 형제"라고 기원했다.

"10kg 빼겠다" IOC위원 출사표 박인비

한국 여자골프의 전설 박인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최종 후보로 내정됐다. 박인비가 2024 파리 올림픽 기간에 진행된 IOC 선수위원 선거에서 당선까지 보여줄 국제 경쟁력도 주목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는 14일 제2차 대한체육회 원로 회의를 개최해 IOC 선수위원 국내 후보자로 박인비를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체육회 선수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박인비를 대상으로 찬반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박인비가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체육회는 이달 안으로 IOC에 선수위원 한국 후보로 후보로 등록할 계획이다.

IOC 선수위원을 향한 경쟁은 치열했다. 골프 박인비, 배구 김연경, 사격 진중호, 태권도 이대훈, 배드민턴 김소영이 경쟁을 벌였다. 평가위원회 면접을 앞둔 5명의 후보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

역대 한국 출신 IOC 선수위원은 2명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처음 선출된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과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당선된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이다.



박인비는 "목표가 있으면 집요하게 해내는 마인드가 있다"며 "유승민 선수위원이 유세기간에 450km를 걷고 5kg가 빠졌다고 들었다. 나는 500km를 걷고 10kg 감량을 목표로 하겠다"며 이색적인 출사표를 던졌다.

오랫동안 해외무대를 누빈 박인비는 뚜렷한 강점인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그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영어로 "훌륭한 선수들과 이 자리에 서게 돼 영광이다. 나는 IOC 선수위원으로 헌신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세계무대를 호령한 박인비는 국제적인 인지도 면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다.

박인비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했고 리우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